

行政大學院이 學界에 미친 影響

金 雲 泰

(教 授)

(一) 大學院設立 以前の 行政學界 現況

解放以後의 美國對韓經濟援助와 特히 6·25 戰爭後의 對韓復興援助計劃推進이 被援國인 韓國政府의 公共行政體制의 後進性과 不合理性으로 그 效率的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은 美援助當局은 韓國政府行政의 理論과 實際面의 發展과 改善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當時 美國政府의 ICA「푸로그램」에 의한 아시아 後進地域에 대한 行政技術援助中の 對韓技術援助事業의 一環으로서 서울大學校와 美國 「미네소타」大學校間의 이 Exchange Program 이 契約되었다. 이 契約에 의거하여 1956 年에 美國 「미네소타」大學校에 있는 公公행정센터 (Public Administration Center)의 行政學教授인 조지·윌 (George A. Warp) 教授가 來韓하여 具體的인 援助計劃에 關한 調查研究가 있었고 그 調查報告에 따라서 1957 年 9 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 行政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研究하며 아울러 指導的인 高級公務員 養成機關으로서 行政大學院의 設置를 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1959 年 4 月 1 日 新學年初를 期해 우리나라에서는 最初로 本行政大學院의 發足과 그 開講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當時 急激히 팽창하고 複雜해져가는 行政機能을 科學的 方法으로 處理할 만한 專門的 知識과 技術的 訓練을 習得한 人材가 極히 不足했고 또한 理論面에서도 行政學의 傳統이 거이 없어 全然 未開拓의 分野였던 만큼 同大學院의 發足은 國內외의 비상한 期待를 갖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本大學院이 생기기 以前の 우리나라 行政學界의 現況을 잠시 回顧해 보건대, 日帝時代 以來로 公法學 또는 獨逸系의 國家學이 學風의 傳統的 基調를 이루워 왔던 만큼 大體로 「行政」이란 概念을 社會學的 意味로서 理解된 것이 아니고 法學的 意味로서 理解된데 不過했으며 따라서 1946 年 8 月 「國立서울 大學校 設立에 關한 法令」에 의거하여 美國의 學制를 模倣한 「行政學科」(定員 60 名)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 設置되었고 뒤이어 1948 年에 釜山大學校 法政大學에 「行政學科」(定員 20 名) 그리고 1955 年에 高麗大學校와 中央大學校의 法政大學에 「行政學科」(定員 50 名)가 各기 設置되었지만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社會科學系의 一分科로서의 「行政學科」가 아니라 公法學的 意味에서의 「行政」의 學科로서 法學科와 더불어 法科大學內에 制度的으로만 存在하고 있는데 不過한 實性이었으

며 이 當時만 하더라도 學界에서 行政學에 關한 理解가 全無했을 뿐더러 行政學을 擔當한 教授가 없었기 때문에 過去부터 存在하였던 公法學的 講義에 의존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안 日本의 몇몇 行政學 및 政治學書籍이 導入되고 또한 美國의 政治學 및 行政學 書籍들이 翻譯 紹介되고 아울러 美國留學生이나 國內외의 極히 少數의 學者 또는 軍公務員 등 實務家들의 往來를 통한 行政學의 紹介도 있는 가운데 從來의 公法學的 行政에 대한 懷疑와 批判이 加해지는 同時에 새로운 行政學에 關한 問題意識을 皮膚로서 느끼게 된 것이며, 마침내 1954年과 55年頃에는 行政研究를 行政法學으로부터 解放시켜 政治學的으로 研究하려는 重點을 둔 啓蒙的인 움직임이 鄭仁興教授(서울大法大)와 趙孝源博士(서울大文理大政治學科講師)를 中心으로 行政學講義나 또는 著書(鄭仁興教授, 行政學, 1955)를 通하여 싹트기 始作했으며 특히 1956年 여름에는 「리그스」(Fred W. Riggs)教授가 Visiting Professor로서 來韓하여 公務員 訓練院에서 三週間の 行政學講義가 있었고 同年 10月에 再次 來韓했던 機會에 國內의 學界및 實務界의 行政學徒들이 서로 合心하여 韓國行政學會를 創設했던 것이다. 한편 서울大 行政大學院 設置를 위한 ICA「푸로그램」이 1956年에 着手되여 이를 위하여 「미네소타」大學校에서 「조지·윌」(G.A. Warp)教授가 來韓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當時의 教授는 公務員 訓練院에 招請되여 「POSDCORB」에 關한 講義를 하고 大學院設置에 關聯된 여러 關係人士와 接觸하는 등 그의 來韓活動契機로 行政學에 關한 國內學界 및 實務界의 關心은 提高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二)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設置와 그 運營이 學界에 미친 影響

서울大 行政大學院은 前記한 「조지·윌」教授의 來韓 實地調查한 結果의 報告에 準據하여 設置된 것으로 同報告書는 行政大學院의 設立目的과 內容, 學事規程, 教科課程, 圖書室과 調查研究室 設置등에 關하여 提案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1957年과 1958年에 各己 11名씩 將次 行政大學院과 中央 公務員教育院의 教授要員候補者를 國內學界와 實務界에서 選拔하여 「미네소타」大學校에 派遣하여 行政學을 研究하도록 했으며 또 1957年과 58년에는 9名의 「미네소타」大學校教授를 招請하여 同大學院設立과 開講에 協調토록 했으며 本大學院은 正規 碩士學位課程(2年履修)과 研究生課程(2年履修)을 가지고 行政에 대한 專門의 研究와 教育, 訓練, 調查 및 諮問活動의 中心機關으로서 ① 學生 및 公務員의 教育訓練 ② 行政學分野에 대한 學術的 研究와 調查 및 出版의 促進. ③ 公共問題에 關心을 가진 人士들을 위한 公報機關으로서의 或은 公共問題解決에 대한 諮問機關으로서의 役割等を 擔當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設立趣旨에 따라 特殊大學院의 制度와 學則이 規定되었고 아울러 同大學院 內部構造로서 圖書室, 調查研究室(Research Center) 등이 設立完成되었으며 이것이 國內學界에 큰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우선 特殊大學院으로서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學則中에서도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는 「카리큘럼」이 國內大學 行政學科와 私立大學校 行政大學院에 미친 影響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카리큘럼」은 조지·윌 教授의 報告書 (A Summary Accou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chool Attached to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 Draft of the School Regulations, Prof, Warp's Report, pp. 15.— 21) 에 依據하여 作成된 것으로 그것은 1959年 開講 當時부터 部分的인 調整은 있었으나 大體로 큰 變動 없이 1968年頃까지 適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았다.

교 과 목 표

필수과목	조직관리론 한국정부론 중 1 과목선택)	인사행정 조사방법론	재무행정 세미나(조직관리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선택과목	회 계 학 통 계 학 (회계학·통계학은 선택으로하되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필수과목으로 함)	헌 법	조직관리론세미나
	행정법(I, II)	재구행정세미나	국제행정
	인사행정세미나	공기업론	지방자치론
	비교행정	공공관계론	외무행정
	조사방법론세미나	행정학특강	공법세미나
	회 계 론	사회심리학	복지행정
	회계학세미나	비교정부	사무관리
	법률학특강	경제발전	지방자치론세미나
	정치행태론	경제분석	계획론세미나
	국제관계론		

이와같은 「카리큘럼」에 의거하여 美國에서 行政學課程을 마치고 돌아온 「미네소타」大學校 「파티시판트」들이 1959년부터 講義를 맡게 되자 行政學은 本格的으로 韓國에서 波及되기 始作하였다. 서울大學校에 行政大學院이 設置되자 곧 뒤이어 다음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 各 大學에 行政學科가 新設되었다.

表 1에서 본바와 같이 全國 各 大學의 行政學科의 設置는 1959年 以後부터 本格化되고 있으며, 1961年에 한때 設置가 없었던 것은 政治的 混亂에 起因한 것으로 보며 政局이 安定된 1962年, 63年, 64年에 이르러 가장 本格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67年度에는 私立綜合大學校인 東國大學校와 建國大學校에 特殊大學院으로서 各己 行政大學院(定員이 100名)이 서울大學校의 行政大學院을 거이 그대로 본따서 設置를 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1958年 乃至 1959年 以後에 全國 各 大學에 行政學科가 續出되고 또 1967년에는 2

個의 私立 大學校 行政大學院까지 誕生을 보게 된것은 우리나라 政府機能의 擴大와 複雜化 그리고 産業化의 促進에 따라 專門的 行政知識과 技術을 體得한 人材가 公私機關에서 많이 要求되게 이르렀다는 現實의 必要성과 아울러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이 設置되고 開講한 以來로 着實한 成長發展과 그 運營에 있어 좋은 實績과 成功을 거두어 온데 起因한바 크다고 해도 誇張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全國 各 大學의 行政學科 (表 I)

設置年度	學 校 名	學 生 數 (現 在)	設置年度	學 校 名	學 生 數 (現 在)
1946	서울大 法大	60	1963	靑丘大 1部	20
1948	釜山大 法大	20		2部	20
1955	高麗大 法政大	50	大邱大		20
	中央大 法大	50		原州大 2部	25
1958	延世大 政法大	60	京畿大(初大)	40	
1959	서울大 行政大學院	100	明知大(初大 2部)	40	
	建國大 法政大 1部	20	靑丘實業大(初大)1部	40	
1960	2部	20	2部	40	
	東國大 法政大	20	圓光大(初大)	30	
	漢陽大 法政大	20	大田實業大(初大)	50	
1962	成均館大 法政大 1部	20	1964	外國語大	30
	2部	20		京畿大	20
	慶熙大 法政大	25	明知大	20	
	國民大 1部	20	1965	成均館大 大學院 2部	20
	2部	20	1966	檀國大 2部	20

事實 이들 新設 行政學科 또는 私大 行政大學院의 「카리큘럼」은 勿論하고 몇個 大學에 있던 既存의 行政學科의 「카리큘럼」도 1958年에 大幅變更을 斷行하여 이들이 모두 本質的으로 같은 內容 또는 같은 傾向을 가지게 이르렀다는 事實은 決코 偶然한 一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몇個 大學의 行政學科와 2個의 私立 行政大學院의 「카리큘럼」은 다음의 (表 2와)같다.

各 大學 行政學科 및 私立 行政大學院 教科目表 (表 II)

高麗大 學校		(20.0%)	(27.8%)
法學概論	3	經濟原論	3
憲法	3	民法(I II)	6
刑法(I II)	6	國際法(I II)	6
行政學概論	3	組織管理論	3
英語原講	8	行政法(I II)	6
商法(I II)	6	人事行政論	3
會計學原理 I	3	財務行政論	3
統計學概論	3	社會法	3
財政學	3	調查方法論	3

延世大學校		(46.7%)	(42.3%)
韓國行政論	3	比較政府論	6
行政學原講	15	社會心理學	3
政府會計學	2	行政法	6
組織管理論	6	財務行政	6
人事行政	6	地方行政	6
行政企劃論	3	調查方法論	3
公法演習	6	行政學演習	3
比較行政	3	P. R. 論	3
行政史	3	行政學概論	3
法學概論	3	政治學概論	3
憲法	6	物權法	3

東國大學校		(37.6%)	(34.2%)
法學通論	3	政治學概論	3
經濟原論	3	行政學概論	3
組織管理論	3	議會論	3
行政學原書	6	社會心理學	3
各國政府論	2	民法大意	3
政治史	3	憲法	3
國際機構論	3	國際法概要	2
人事行政	3	財務行政	3
行政法(I, II)	6	各國公務員制度論	2
行政計劃論	2	調查方法論	2
地方自治論	2	官僚制度論	3
公共關係論	2	韓國政府論	3
行政學演習	3	比較行政論	3
行政學特講	3	行政管理論	2
政治心理學	3	國際行政論	3
公企業論	2		

慶熙大學校			(43.9%)	(41.3%)	
科目	學點	學年	科目	學點	學年
憲法	(4)	1	政治原論	(4)	1
行政學概論	(4)	1	韓國政府論	(4)	2
行政法一部	(4)	2	行政調查	(4)	2
行政統計	(4)	2	行政組織	(4)	2
外書講讀	(6)	2, 3, 4	人事行政	(4)	3
財務行政	(4)	3	企劃管理	(4)	3
人間關係	(4)	3	行政過程	(4)	3
後進國行政論	(4)	3	行政學演習	(4)	3
比較行政	(4)	4	地方行政	(4)	4

行政學特講	(4)	4	政治行爲論	(4)	4
政治政策	(4)	4	公企業	(4)	4

嶺南大學校 (46.2%) (40.6%)

政治學概論	4	行政學概論	4
法學概論	4	經濟學原論	4
憲法	4	行政學原論	4
組織管理論	4	行政法(I II)	8
民法(I)	4	英語講讀	6
人事行政論	4	財務行政論	4
計劃論	4	地方行政論	4
韓國政府論	4	調查方法論	4
比較行政論	4	國際行政論	4
福祉行政論	4	公企業論	4
行政學演習	4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

- (共必) { 韓國政府論 (共必)
 { 韓國經濟論 (")
 { 組織管理論 (專必)——조직관리 전공자.
 { 地方行政論 (")——지방행정 전공자.
 { 行政計劃論 (")——행정계획 전공자.
- (選擇) 行政特講(選擇)——학부에서 행정학을 이수하지 않은者.
行政學理論} 행정학원론을 이미 이수한자.
人事行政實務} 행정학원론을 이미 이수한자.
計劃行政實務——계획행정을 이미 이수한자.
地方行政實務——지방행정론을 이미 이수한자.
行政學演習 政治學特講
經營學特講 現代政治論
憲法特講 公企業論
事務管理論 立法過程論
行政法 決定作成論
- Seminar (專攻分野別)
 { 組織管理세미나
 { 人事行政세미나
 { 財務行政세미나
 { 地方行政세미나
 { 行政計劃세미나

建國大學校行政大學院

- (共必) 行政學說 및 方法論 行政調查論
 組織管理論 行政統計論
 人事行政論 財務行政論
 計劃論

(選 擇)	事務管理 地方行政 公 企 業 行 政 法 韓國政府論 官僚制度論 經濟發展論 法 學 特 講 社會心理學 會 計 監 查 政治行態論 警察幹部論	人間關係 開發行政 公安行政 社會學特講 公共關係論 租稅制度論 經濟學特講 比較教育論 教育心理學 地域社會開發論 規制行政論 警察制度論	會 計 學 教育行政 稅務行政 教育原理 行政決定論 都市行政論 政治學特講 財政政策 教 育 史 福祉行政論 財務會計論
Seminar	(專攻分野別) 조직관리세미나 地方行政세미나 公 企 業세미나	인사행정세미나 開發行政세미나 警察行政세미나	재무행정세미나 教育行政세미나 稅務行政세미나

表 2 에서 처음에提示된 比率은 行政學의 基本科目(行政法包含)이 大學 4 年間的 履修總學點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이며 나중에提示된 比率은 行政法을 除外한 基本科目이 차지하는 比率을 表示한다.

大學課程에서는 行政學의 隣接科目 또는 教養科目을 함께 履修해야 할 必要上 그 比率이 高大 20.0%(17.8%), 延世大 46.7%(42.3%), 東大 37.6%(34.2%), 慶熙大 43.9%(41.3%), 嶺南大 46.2%(40.6%) 등에서 보다싶이 20%~46.7%(17.8%~42.3%) 程度이며 各 大學의 傳統이나 教授事情으로 그 比率은 매우 融通의 旨을 알 수 있다. 例컨데 公法學의 學風의 傳統이 強한 高大 行政學科는 隣接科學으로서 法律學이 차지하는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은데 比하여 新設된지 日淺한 延世大學校, 東國大學校 및 嶺南大學校의 行政學科의 경우에는 行政學 基本科目의 全體科目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各 大學의 「카리큘럼」이 그 自體의 合理性보다도 各 大學의 專任教授들로서 講座를 擔當케 해야 할 必要上 各者의 專攻關係를 勘案한 人的要因에 依하여 左右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實情에 빛우워 首肯이 가는 바이지만 如何間에 1959 年以來的 全國 各 大學 行政學科의 教育內容이 基本的 共通性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大學院課程에 있어 2 個의 新設 私大 行政大學院의 教科目內容을 볼 때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그것과 基本內容에 있어서 같으나 專攻分野를 더욱 細分하고 있음 알 수 있다.

무릇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初期의 「카리큘럼」의 普及이 우리나라 學界에 준 主要한 影響으로서는 첫째로 社會科學의 一獨立分科로서의 行政學의 研究對象과 方法에 關한 뚜렷한 認識을 鼓吹했다는 點, 둘째로 美國의 經驗主義的 研究方法인 行態學(Behavioral Science)를 教

科內容에서 重要視하고 強調함으로서 傳統的인 公法學的 接近方法을 止揚하여 獨立科學으로서의 體系의인 行政學과 政治學을 發展시킬 수 있는 風土를 培養하는데 寄與한 點등을 들을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行政狀況에 대한 經驗主義的 推理를 하는 동안 行政의 比較研究와 韓國 行政問題에 關한 追求를 促求한 點을 아울러 들을 수 있겠다. 그러나 「카리큐람」은 現在와 將來의 必要性에 副應하여 漸進的으로 調整 또는 修正을 加해야 하느니 만큼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카리큐람」도 最近 經濟學, 政策分析 그리고 電子計算機導入을 豫想한 計量分析論等を 強調하는 內容으로 補正하여 보다 우리나라의 現實情에 適合하고 또한 將來의 必要性에 對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教育內容의 새로운 傾向이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學界에 影響을 주리라고 믿는다.

다음 以上 論及한 教育內容을 떠나서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內部構造나 學則 또는 그 運營方式等도 學界에 影響을 준 것이다. 持히 1967年에 新設된 建國大와 東國大의 行政大學院 構成과 運營에 있어 「모델」이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이들 各大學院의 事情에 따라 晝夜間 編成(서울대에만 1, 2部가 있음), 入學資格要件, 成績配布方式, 傳攻分野, 研究生의 履修年限, 學生募集時期, 論文提出者資格試驗制등에 있어서는 相異한 바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制度面의 影響보다도 重要한 것은 그 學風이 미친 影響이 아닌가 생각한다. 卽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公私立 大學校의 大學院들이 解放以後 계속 많이 設置되었지만 豫算의 뒷받침이나 教授의 充員이 없고 단 한사람의 傳任教授도 없이 undergraduate course의 教授들이 講師로서 講義를 擔當하고 있는 關係로 事實上 제대로의 教育을 實施하지 못하고 形式的으로만 存在하고 있는데 不過한 實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解放以後의 우리나라의 商業教育이 美國같은 先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大學院보다도 大學中心으로 運營되고 大學院教育을 輕視하여 온데 起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誕生은 大學院教育의 새로운 「모델」을 提示한 것이었다. 同 大學院은 그 設立을 위해서 52萬 7千弗의 ICA 援助가 充當되었으며 이것도 美國教授를 韓國에 招致하고 한편 韓國側의 教授要員을 美國에 派遣教育시키는데 所要되는 經費와 圖書室 設立費로서 5萬弗이 이에 加算된 것에 不過하고 그외의 所要經費는 主로 政府豫算과 美國 各機關의 援助의 뒷받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1958年 서울대에 行政大學院이 設置되고 그 翌年에 開講을 본 以來로 同大學院은 教授陣構成이나 內部施設 裝備等 面에서 國內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던 充實한 內容을 갖추고 運營되어온 것이며 眞實로 工夫하는 大學院으로서의 傳統과 學風을 結어온 것이다. 이러한 學風의 培養은 國內 大學院教育 그중에서도 前記한 私大의 2個 行政大學院教育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쳐 온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行政大 圖書室은 ICA 援助로 1962年度까지의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의 新刊 圖書를 갖추고 있고 「카드」制(card system)가 最新式으로 整備되어 있다는 點에서 國內에서는 자랑

할만한 것이며 最近 東西文化센터와의 圖書交換協約과 아시아財團의 後援으로 其後の 新刊書籍 및 定期刊行物을 入手함으로써 國內의 行政學徒나 社會科學徒에게 研究에 寄與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行政大의 調査研究室은 韓國固有의 行政實態를 調査研究하고 아울러 韓國行政問題를 主題로한 各種의 「세미나」 및 調査報告書의 形式으로 實務界는 勿論하고 우리나라 學界에도 적지 않은 寄與를 해온 것이다. 同 調査研究室이 1959年부터 오늘날까지 해온 研究活動의 內역을 보면 다음 (表 Ⅲ)과 같다.

한편 本 大學院에는 1967年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新設되어 昨年부터 開講을 하고 있으며 現在는 準備段階로서 모든 面に 未及하지만 앞으로 이 分野에서 國家發展에 큰 寄與가 期待되는 것이다.

行政調査研究所의 研究報告書

1. 1959, A Study on Radio Listening Habits of the Country.
2. 1960, The Compilation of the Organizational Charts and their Function Description of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3. 1961, The First National Opinion Poll.
4. —, A Study on City “Up and Myum” Administration.
5. 1961, A Study on the Applicant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Examination.
6. 1961, A Diagnostic Study on Provincial Government.
7. 1962, A Study on Korean Family Consciousness.
8. 1962, A Study on the Local Community Consciousness.
9. 1963, A Study on Seoul National Univenity Administration.
10. 1965, Top Managemants.
11. 1966, Civil Service System.
12. 1967, The Changing Qualifications of the Ministers, Vice-Ministers, Assistant-Vice Ministers, and Bureau Chiefs from 1948-1967.
13. 1967, Inter-University P.A. Case Development Programme.
14. 1967, Decision Making Process: The Rate Setting of Public Utilit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15. 1968, An Overall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16. 1968, A Study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3) 教授의 學界活動

各 教授의 學界活動은 主要 著書, 譯書 및 論文 그리고 他大學 出講과 招請講義 나아가서 各 教授의 國內外的 學會 및 研究機關參與등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著書를 통한 教授들의 活動을 살펴 보건데 教授들의 著述은 그들이 ICA 技術援助計劃에 의하여 教授要員으로 各國에 派遣되어 教育을 받고 歸國하고 同時에 서울大學校에 設置된 行

政大學院이 開講을 한 1959年度부터 始作이 되었다. 이들의 著書는 美·英에서 發達한 新興科學으로서의 行政學理論體系를 우리나라에 새로 本格的으로 導入하고 그 學術的研究를 本軌道에 오르게 했으며 나아가서는 韓國固有의 行政狀況에 알맞도록 行政理論을 展開시키려는 學究的 努力의 結晶이라 하겠다.

各教授들이 著書를 出版年代順으로 살펴 보건데 1959年 10월에 刊行된 金雲泰著「行政學要論」(610面)은「行政學研究方法과 現代各國의 行政現象의 比較解明과 아울러 組織管理論의 現實的 機能에 關한 比較考察」등을 最初로 試圖한 著書이었다. 뒤이어 1959年 12월에 當時의 行政大學院教授를 兼任한 李相助教授의 行政學入門書로서「行政學原論」그리고 1961年 4월에「新行政學」(556面)이 刊行되었다. 前記한「行政學原論」은 著者도 認定하다시피「燥急히 서두렀던 關係로 內容이 疎略한」것이 있으나「新行政學」은「行政全般 對象에 關한 研究라 여러 學說를 紹介」한 것으로 特히 實務界에 미친 影響이 컸다. 같은 時期인 61年 4월에는 俞焄著「行政學原論」(521面)과 金雲泰著「政治學要論」(562面)이 刊行되었으며 前者는「傳統的인 立場과 行態的인 立場의 調和를 試圖하면서 行政學 各分野에 걸쳐서 概括的인 考察」를 한 것이고 後者는 우리나라의 貧弱한 政治學體系의「傳統的인 테두리를 벗어나 政治學 固有의 問題意識의 自覺下에서 그 全體領域을 網羅하여 輪廓을 밝히고 새로운 指針提示」를 試圖한 政治學著書이다. 그리고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徐元宇共著「行政學講義」가 教材用으로 各大學의 여러 行政學擔當 教授編著로 刊行되었고 1963년에는 趙錫俊共著「行政學大意」가 教材用著書로 刊行되고, 뒤이어 1864年에 刊行된 金雲泰著「行政學原論」(551面)은 前記 1959年 出版「行政學要論」을 大幅改訂增補한 것으로「行政學 全領域에 걸친 理論的 體系化」를 試圖한 것이었다. 概觀하건데 以上 各教授의 原論 著述들은 各著者들이 推理에 있어 心血을 기울여 우리나라 行政狀況에 焦點을 맞추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였던 것이지만, 亦是 初創期의 著述이니 만큼 우리나라의 行政運營에 關한 充分한 檢討가 缺如되었음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로서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行政學徒는 누구나 할것없이 韓國 固有의 行政狀況에 알맞는 理論追求를 共通課題로 삼고 꾸준히 共同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1962年度부터는 韓國行政問題를 主題로 한 單行本이나 論文이 나타나고 또한 專門分野別 研究著書가 나타나기 始作했다. 李朝時代以來의 人事行政의 史的展開問題를 다룬 朴東緒 教授의「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展開」(1961年 12月)의 刊行은 前者의 하나의 試圖라 하겠다. 이렇듯 韓國의 行政學이 導入되어 主體의 視座에서 體系化되어가는 가운데 行政學의 專門 分野別 研究와 著述活動이 行政大 諸 教授를 中心으로 展開되어 왔다. 朴東緒著「人事行政論」1962,「比較公務員制度論」1963, 金海東著「調查方法論講義」1962, 趙錫俊著「組織管理論」1963, 俞焄著「財務行政論」1963, 崔鍾起著「國際行政」1963,「國際聯合論」1964,「國際關係論」1966, 金雲泰著「組織管理論」1966, 李雄雄根著「會計學要論」1966,「韓國公

共料金の研究」1966, 俞焄著「公企業論」1966, 盧隆熙著「國稅와 地方稅調整에 關한 研究」權泰俊著「Legal Profession in Korea」그리고 金雲泰著「現代官僚組織論」1968 등이 그것이다.

다음 우리나라 學界에서는 最近 1965年頃 以來로 比較行政研究 또는 『發展行政研究에 큰 關心을 갖게 되었는데 이 分野에 있어서 開拓的 役割을 한 展述로서 朴東緒編著「發展論序論說」1965(220面)과 李漢彬著「社會變動과 行政」1968(269面) 및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1968) 등을 들을 수 있겠다. 朴教授의 編著는 發展行政을 焦點으로한 社會科學 各 分野의 共同研究(interdisciplinary study) (人間要因, 儒敎, 經濟, 國土開發, 經濟開發, 政治, 通信行政 등)를 最初로 試圖한 것이고, 李教授의 著書는 發展行政을 위한 時間志向의 類型論을 摸索하고 그에 따라 韓國의 社會變動을 評價하고 다시 歷代政府의 政策指向을 論述한 勞作이다. (表 IV 參照)

아울러 李漢彬教授는 1969年에 「國家發展의 理論과 戰略」 Administrative Reforms in Asia (共編 EROPA) 그리고 Handbook on Development Administration Curriculum(Brussels: II AS) 등의 出版을 豫定하고 있다.

教授들의 主要 著書譯書 및 論文 (表 IV)

1. 著 書

- 李漢彬, 「社會變動과 行政」博英社 1968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8
「작은 나라가 사는 길」, 東亞出版社, 1965
「國家發展의 理論과 戰略」(1969 出刊豫定)
Administrative Reforms in Asia (共編 EROPA, 1969 出版豫定)
- 金雲泰, 「行政學要論」, 民衆書館, 1959. 10.
「政治學要論」, 博英社, 1961. 4.
「行政學原論」, 博英社, 1964.
「組織管理論」, 博英社, 1966.
「現代官僚組織論」, 一潮閣, 1968.
-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展開」, 韓國研究圖書館, 1961. 12.
「人事行政論」, 法文社, 1962.
「比較公務員制度論」, 博英社, 1963.
「發展論序說」(編著), 博英社, 1965.
- 俞 焄, 「財務行政論」, 法文社, 1963.
「行政學原論」, 法文社, 1961. 4
「公企業論」, 法文社, 1968.
- 盧隆熙,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研究」, 韓國產業能率本部, 1967.
- 趙錫俊, 「組織管理論」, 法文社, 1963.
「行政學大意」, (共著)法文社, 1963.
- 金海東, 「調查方法論講義」, 三中堂, 1962.

- 崔鍾起, 「國際行政」, 法文社, 1963.
「國際聯合論」, 博英社, 1964.
「國際關係論」, 博英社, 1966.
- 徐元宇, 「行政學講義」(共著), 文運堂, 1961.
- 李雄根, 「會計學要論」, 韓國產業能率本部, 1966.
「韓國公共料金の研究」, 韓國產業能率本部, 1966.
- 權泰俊, 「Legal Profession in Korea」, (共著).

다음 翻譯을 통한 諸 教授들의 活動은 다음 表 V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學術原書를 翻譯出版하는 것이 또한 教授의 主要學究의 活動으로서 重要한 意義를 지닌 것이었다. 1959년까지는 金雲泰教授에 의한 「메리암」 C.E. Merriam 原著의 「政治學序說」 및 「體系的政治學」과 「마키버」 R.M. MacIver 原著의 「政治學原論」의 共譯과 「솔토우」 原著 「政治學入門」의 譯書刊行 그리고 盧隆熙教授에 의한 Where 原著의 「現代憲法」 譯書가 있고 行政分野에서는 美國의 行政學을 처음 紹介한 「화이트」 L.D. White 原著의 「行政學入門」이 李漢彬教授共譯으로 刊行되어 啓勤役割을 하였다.

다음 1960年度 以來로 翻譯된 것으로서 安海均譯 「막스」 F.M. Marx. 의 「行政國家論」, 崔鍾起譯 「펠러」 A.H Feller 의 「國際社會」, 그리고 發展行政分野에서 朴東緒, 徐元宇 共譯의 「리그스」 F.W Riggs 原著의 「新生國行政論」과 徐元宇譯의 「헤디」 F.Heady 原著의 「比較行政論」, 俞焄共譯의 「現代的 政治學」 및 金雲泰共譯 P.Pigors 原著의 「人事管理論」 등이 있다.

(表 V)

2. 譯 書

- 李漢彬, 「行政學入門」(L.D. White 原著), 乙酉文化社, 1958. (共譯)
- 金雲泰, 「政治學序說」(Charles E. Merriam 原著), 第一文化社 1955 (共譯)
「體系的政治學」(C.E. Merriam 原著), 一潮閣, 1959 (共譯)
「政治學原論」(R.M. MacIver 原著), 韓國大學教材公社, 1957 (共譯)
「政治學入門」(R.H. Soltau 原著), 精研社, 1957.
「人事管理論」(P. Pigors 原著), 一潮閣, 1962 (共譯)
- 朴東緒, 「新生國行政論」(Fred W. Riggs 原著),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64 (共著)
- 盧隆熙, 「現代憲法」(Where 原著), 博英社, 1957
「法の成長」, 凡文社, 1958.
- 俞焄, 「現代的 政治學」(共譯), 一潮閣.
- 徐元宇, 「新生國行政論」, (共譯)
「比較行政論」(F. Heady 原著), 法文社, 1968.
- 安海均, 「行政國家論」(F.M. Marx 原著)
- 崔鍾起, 「國際社會」(A.H. Feller 原著), 法文社, 1960

다음 各教授의 主要論文에 關하여 여기서 다 論及하기는 困難하나 우선 主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一部를 紹介하면 다음 表 VI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年代順으로 살피기 보다는 各教授別로 그 論文을 通한 學究的 一般傾向을 言及하는데 끝이려 한다.

李漢彬教授는 發展行政·社會變動과 官僚制 또는 行政改革, 教育發展計劃, 政策分析等의 分野를 志向하여 開拓하고 있으며 金雲泰教授는 韓國政府의 構造機能分析, 組織論, 期鮮王朝 行政史, 後進國 比較政治 分野研究를, 朴東緒教授는 人事行政比較行政, 發展行政 行政理論等 分野를 盧隆熙教授는 地方自治, 地方行政 分野로 俞焄教授는 財務行政, 公企業, 政策形成分野를, 趙錫俊教授는 組織論, 決定作成論, 行政理論分野를, 金海東教授는 調查研究, 實態分析 分野를 徐元宇教授는 行政法과 行政學을 링크시키는 試圖를 開拓하고 아울러 比較行政研究 分野를, 安海均教授는 「매스·콤」, 社會集團論, 政治過程分野를, 崔鍾起教授는 國際行政, 外援行政 分野를, 李雄根教授는 會計學, 公企業 分野를 그리고 權泰坡教授는 都市地域計劃 分野를 各己 專門的으로 研究하고 있다.

教授論文과 關聯하여 서울大 行政大學院의 「行政論叢」은 1962年以來로 九冊이 發行되어 卒業生과 國內主要公私機關에 그리고 外國의 大學 및 研究機關에 配布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主로 本 行政大教授의 主要論文과 또 每年 卒業生의 碩士學位論文中에서 優秀作 몇篇 씩을 그때 그때 실리고 있는 것이다. 1966年부터는 每年 二回式 本格的으로 發行되고 있어 國內 外의 行政學徒의 關心을 모우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主 要 論 文 (表 VI)

- 李漢彬, 「發展型 時觀論」—發展行政에 應用할 수 있는 時間志向의 類型論의 摸索을 위한 小考, 行政論叢, 4卷 2號, 1966.
- 韓國豫算改革論攷, 行政論叢, 6卷 1號, 1968.
- 解放後 韓國의 政治變動과 官僚制의 役割, 行政論叢, 5卷 1號, 1967
- “Developmentalist Time and Leadership in Developing Country,” CAG paper, 1965.
- “The Role of Higher Civil Service under Rapid Social and Political Change,” CAG paper, 1966.
- “From Ecology to Time,”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XXXIII, No. 2, 1967 (Brussels)
- “Politische Wandel und die Entwicklung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n Korea seit 1935,” *Die Verwaltung*, Vol. I, No. 2, 1968, (Berlin)
- 金雲泰, 政治의 象徴의 操作, 政治學報, 서울大 文理大 1957.
-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Practices in the Government of Korea(M.A.P.A thesis, 미네소타大學校提出) 1959.
- 行動科學論에 關한 考察, 政治學報, 서울大 文理大, 1960
- 印度리더십의 特徵, 思想界, 1961年 6月號.
- 後進國行政 比較研究에 關한 考察, 行政論叢, 1964. 第2卷 1號.
- 韓國行政組織의 特質과 改善에 關한 考察, 政經研究, 1965

- 政治意識의 再編과 政黨體質改善에 關한 考察 政經研究, 1967 1月號.
- 現代官僚組織의 專門化過程과 階層制役割의 變動에 關한 狀況의 考察, 行政論叢, 1965. 3卷 1號, 1966. 4卷 1號 1967. 5卷 1號.
- People's Communication and Consciousness in Regional Development. (KOREANA. quarterly 1968 Vol. 10. No. 12.)
- 朝鮮王朝의 行政史研究, 行政論叢, I, II 1968. 6卷 1號 및 2號.
- 朴東緒, 政務官과 行政官의 關係, 行政論叢 2卷 1號, 1964.
- 發展行政能力의 向上, 行政論叢, 4卷 1號, 1966
- 韓國行政府의 政策決定, 行政論叢, 4卷 2號, 1966
- 韓國行政理論序說, 行政論叢, 5卷 1號, 1967
- 韓國行政의 史的 變遷模型, 行政論叢, 5卷 2號, 1967
- Translated in: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No. 26, June, 1967
- 發展行政과 韓國人事行政理論, 行政論叢, 6卷 1號, 1968
- 韓國高級公務員의 問題點 行政管理, 13卷 8號, 1963
- Translated by East-West Center
- 行政學과 教育, “教育和 關聯科學,” 現代教育叢書, 1966
-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行政의 役割, 韓國行政學報 1輯, 1967
- 韓國 行政學의 現象과 役割, 韓國政治學會報 2輯, 1967.
- Translated in; Aspects of Ad. Development in South Korea.
- 韓國行政府의 高級管理者의 資格調查, 行政論叢, 6권 2호 1968.
- An Ec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 Korean Q. Vol 9. No4. Winter 1967.
- 俞 焄, 公企業과 豫算制度, 行政論叢, 創刊號, 1962
- 經濟發展과 公企業 터키와 멕시코의 경우를 中心으로—, 行政論叢, 3卷 1號, 1965
- 公企業의 勞動關係, 行政論叢, 5卷 2號, 1967
- 우리나라 豫算制度에 대한 批判的 考察, 國會報
- 韓國行政에 있어서의 財務行政의 問題, 法政 6月號. 1963
- 成果主義豫算과 會計監查, 監查月報, 7月號, 1965
- 英美公社制度의 特徵, 法制月部 1964.
- 機關形成에 關한 事例研究, 行政管理 1968. 12月號
- 公企業에 대한 政府의 統制, 1966 監查月報.
- 高級公務員의 社會的背景, 行政論叢, 第4卷 第2號.
- 趙錫俊, 心理的 葛藤과 行政指導者, 行政論叢, 創刊號, 1962
- 韓國에서의 行政的 分權化의 必要性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2卷 1號, 1964
- 決定作成에 있어서의 葛藤理論과 韓國行政, 行政論叢, 5卷 2號, 1967
- 軍事革命政府와 組織改編, 行政論叢, 6卷 1號, 1968
- 韓國軍事革命下에 있어서의 두개의 行政改革에 關한 研究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과 基本運營計劃制度, 行政論叢, 6卷 2號, 1968
- 行政改革과 抵抗의 問題, 行政管理, 2卷 2號. 1963
- 決定作成의 兩型과 韓國行政, 行政學報, 創刊號, 1967
-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 Case Study”, Byung Chol Koh ed., *Aspects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in South Korea*, Michigan, 1967

- 金海東, 官僚의 不正의 原因에 關한 理念的 理論構成, 行政論叢, 4卷 2號, 1966
 去來誘致手段에 關한 社會心理學的 調查, 行政論叢, 2卷 1號, 1964.
- 盧隆熙, 地方代議制의 面에서 본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發達, 行政論叢, 2卷 1號, 1964
 英國地方行政의 研究, 行政論叢, 創刊號, 1962
 地方自治意識의 實態報告, 行政論叢, 創刊號. 2卷 1號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르는 諸問題點, 政策秀報, 3號 1卷 1966年 1月號.
 地方發展과 壓力團體, 思想界, 12月號, 1966
 地方自治制와 地方選舉, 國會報, 11月號, 1966
 地方自治의 事務와 範圍, 地方行政, 10月號, 1960
 地方財政의 實態와 問題點, 監查月報, 7月號, 1967
- 徐元宇, 發展國家에 있어서의 官僚制의 役割, 行政論叢, 5卷 2號, 1967
 法制發展과 行政의 役割, 行政學報, 創刊號, 1967
 政治體系類型과 官僚制의 役割, 行政學報, (建國大學校行政大學院發行), 創刊號, 1968
 行政學과 行政法學의 關係, 法政, 3月號, 4月號, 1966
 自由裁量概念의 再檢討, 法政 5月號, 6月號, 1964
- 安海均, Small Group의 社會的 機能—政治行政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行政論叢, 創刊號 1962
 韓國의 近代化와 Communication. 行政論叢, 2卷 1號, 1964
 小集團의 社會的 機能, 行政學報, 創刊號, 1967
 政治發展과 Mass Comm의 役割에 關한 研究.
 韓國地域社會發展과 行政의 役割.
- 崔鍾起,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人事管理上의 問題點, 行政論叢, 卷號 . 1962
 後進國開發을 위한 援助貿易에 關한 檢討, 行政論叢, 4卷 1號. 1966
 韓國外務行政의 變遷과 問題點, 行政論叢, 5卷 1號, 1967
 共產圈의 對外援助政策, 國際法學會論叢, 1966
 亞細亞 地域의 經濟協力에 關한 研究, 海外事項, 3輯 1967
- 李雄根, 政府形態의 經營形態改編에 關한 一考, 行政論叢, 4卷 1號, 1966
 公益事業料金の 合理的 決定原則, 行政論叢, 4卷 2號 966
 公共料金の 規制와 그 限界, 行政論叢, 5卷 1號, 1967
 公企業의 財政制度
 鐵道事業의 經營形態改編에 關한 考察 1966
- 權泰拔, 公共去來法案의 分析評價, 政經研究, 10月號. 1967

다음 教授들의 主要報告書도 前記한 바의 各教授의 專攻分別 또는 關心事 爲主로한 調查 研究의 結果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行政大教授의 調查研究活動은 1961年부터 活潑히 各分野 別로 展開되어 왔다. 이들 報告書는 式은 政府政策立案의 參考資料로서 或은 韓國固有의 行政狀況把握에 많은 寄與가 있었다. (表 VII參照)

教授들의 主要報告書 (表 VII)

- 李漢彬, 韓國豫算制度 改革에 關한 研究. (行政調查研究所研究報告書 1968)
 韓國 行政史 (共同研究), (韓國行政問題研究所 研究報告書, 1967)
- 朴東緒, 最高管理(行政改革調查委員會), (共同研究)

- 公務員制度, (行政改革調查委員會)(共同研究)
 綜合行政調查(行政改革調查委員會)(共同研究)
 長次官局長의 資格 (共同研究)
- 俞 焘, 最高管理, (共同研究)
 公務員制度, (共同研究)
 綜合行政調查, (共同研究)
 行政改革의 綜合的評價, (USAID, 科學技術處)
 韓國行政史, (共同研究)
 除隊軍人의 營農教育實態, (援護處)
 除隊軍人의 實態調查, (援護處)(共同研究)
- 趙錫俊, 首都行政(行改委)
 韓國行政史, (共同研究)
 公共料金決定過程에 關한 研究, (USAID, 科學技術處)
 韓國에서의 行政分權化의 實踐方案에 關한 研究. (文教部)
- 徐元守, 地方行政調查
 首都行政 (共同研究)
 貯金保險管理事務改善研究, (遞信部)
 우리나라 訴願制度研究, (文教部), 1967
 行政改革의 綜合的評價
 韓國行政史(共同研究)
- 盧隆熙, 職階制導入의 可能性에 대하여, (內閣事務處), 1961
 地方自治意識實態調查. (內務部), 1965
 首都行政調查 (行改委) (共同研究), 1966
 事務配分實態調查, (內務部) 1966
 基礎的 自治團體의 區域(內務部) 1967
 邑面行政實態調查 (內務部) 1968
- 金海東, 第一回國民輿論調查報告書, (國務院事務處)
 全國公務員士氣調查報告書
 最高管理(共同研究)
 公務員制度(共同研究)
 綜合行政調查(共同研究)
 逃亡兵調查(陸軍本部)
 韓國의 社會的 經濟的 發展을 위한 除隊軍人의 役割, (援護處)
 除隊軍人의 實態調查, (援護處) (共同研究)
- 安海均, 韓國地域社會開發에 關한 調查研究
 警察行政의 業務調查研究
 地方行政實態調查研究
 陸軍問題士兵調查研究
 商工部工業行政에 關한 研究
 韓國行政史(共同研究)
- 崔鍾起, 最高管理(共同研究)

公務員制度(共同研究)

亞細亞地域의 共同市場에 關한 研究, (經濟企劃院 1968)

國際公務員制度의 效率的 改善方案 (서울大 大學院, 1963)

技術援助計劃의 效率的 改善方案 (文教部, 1966)

權泰竣, 外資投資法의 研究 (經濟企劃院)

李雄根,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研究(財務部, 1967)

郵政行政改善에 關한 研究(유승, 1967)

國有財産管理處分制度의 改善에 關한 研究(財務部 1968)

國稅行政의 改善을 위한 人力·業務量의 調査(유승, 1968)

遞信事業의 事業別會計年度에 關한 研究 (遞信部, 1966)

現行電氣料金에 대한 研究 (韓電 1966)

金雲泰, 最高管理(共同研究)

公務員制度(共同研究)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에 關한 實態調査分析과 韓國官僚制度의 改革을 위한 提案(文教部, 1965)

朝鮮王朝의 行政史 研究(文教部 1968)

우리나라 長次官·局長의 社會的成分과 資格에 關한 研究(共同研究)

서울大 行政大學院教授의 他大學 出講狀況 및 招請講義 實績은 다음 表 VII와 같다. 本大學院이 行政學全域에 걸쳐 各 專攻分野別 教授陣을 거히 完全히 갖춘 先驅的인 存在로서 認定받고 있는 터이지만 亦是 他大學의 教授의 支援을 어느 程度 받지 않을 수 없는거와 같이 教授의 他大學(院)出講은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不可避한 것이었다. 더욱이 大部分의 他大學(院)의 行政學科가 日淺한 歷史와 特別事情으로 行政學教授가 不足한 形便이고 보면 本大學院教授들의 他大學出講은 行政學을 普及시키는 見地에서도 意義가 있는 것이다. 다만 教授 各自의 研究에 支障을 招來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出講時間을 可及 減縮調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招請講演은 外部의 特別한 招請으로 講演을 하는 경우에 限해서는 그 效果나 影響面에서 意義가 크다고 보며 李漢彬教授의 括目할만한 活動이 엿보인다.

教授들의 他大學出講

(表 VII)

朴東緒, 서울大法大, 文理大, 新聞大學院, 東國大學校.

盧隆熙, 서울大法大, 建國大學校, 東國大學校, 明知大學, 國民大學.

俞 焄, 서울大法大, 大學院, 建國大學校, 東國大學校, 延世大學校.

趙錫俊, 서울大法大, 文理大, 商大, 延世大學校, 高麗大學校, 中央大學校, 建國大學校.

徐元宇, 서울大法大, 建國大學校

金海東, 建國大學校, 延世大學校, 高麗大學校

安海均, 서울大法大, 新聞大學院, 保健大學院, 延世大學校, 建國大學校.

崔鍾起, 서울大法大, 外國語大學, 延世大學校, 高麗大學校, 成均館大學校.

權泰竣, 서울大法大, 商大.

金雲泰, 서울大文理大, 大學院, 延世大學校, 東國大學校, 建國大學校.

教授들의 招請講演

- 李漢彬, 1966. 10. 서울大學校 開校 20 週年記念學術講演
「行政學研究的 時間的 次元」
1967. 3. 韓國教育學會總會
「行政學徒가 본 韓國의 教育」
1967. 7. 韓國教育研究所 主催 民主市民세미나
「韓國行政過程에 나타난 文化價值」
1967. 11. 韓國社會學會總會
「行政學的 發展論의인 理論展開」
1968. 5. 韓國法學院
「韓國의 社會變動과 行政의 發展」
1968. 6. UNESCO 主催. 社會科學者세미나
「國際學術交流를 위한 提案」
1968. 11. 韓國社會科學研究院
「韓國社會의 變動과 官僚制의 變貌」
1968. 4.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轉換期에 있어서의 學者의 役割」
1968. 11. 中央大學校
「國家發展과 行政의 役割」
1968. 12. 嶺南大學校
「行政學的 最近動向」
1968. 8. 行政改革調查委員會 및 Stanford 大學 共同主催—大學教育 Seminar
「國家發展을 위한 大學의 長期計劃」
1968. 9. 美國行政學會 CAG 및 SEADAG 共同主催, 發展行政세미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機關形成」
- 朴東緒, 1966. 政治學會
「韓國行政學研究的 現況」
- 1967 教育學會
「韓國政治行政의 分析」
- 그밖에 中央公務員教育院, 地方行政研修院, 教育行政研修院에서 초청강의
- 俞 焘, 中央公務員教育院, 서울시公務員教育院에서 초청강의
- 金海東, 中央公務員教育院, 警察專門學校등.
- 趙錫俊, 行政改革調查委員會, 中央公務員教育院, 서울시公務員教育院, 韓國銀行, 商業
銀行, 銀行集會所, 靑丘大學등에서
- 安海均, 中央公務員教育院, 서울시公務員教育院, 警察專門學校등
- 崔鍾起, 1967. 國防大學院, 「國際機構에 관한 問題點」
1968. 國防大學院, 「中東, 아프리카地域의 民族主義」
1966. 空軍大學, 「西歐陣營의 政治的인 諸問題點」
- 金雲泰, 1968. 韓國行政學會, 「朝鮮王朝의 政策決定過程」
- 그밖에 國防大學院, 海軍大學, 中央公務員教育院, 서울시公務員教育院, 大

邱大學, 靑丘大學 등에서 초청강의

盧隆熙,

商業銀行, 朝興銀行, 警察專門學校, 情報學校 등에서

끝으로 敎授들의 國內學會 또는 國際學術會議에 參加한 現況은 다음 表 IX와 같다.

國內學會로 1956年 創立된 韓國行政學會(KAPA)와 1964年 創立된 韓國行政問題研究所(KRIPA)에 敎授들이 參與하고 있고 또 各敎授別로 專攻 또는 關心있는 研究機關에 參與하고 있으며 敎授들이 參加하는 國際會議은 定期的으로 開催되는 I.I.A.S., EROPA를 위시하여 各敎授의 個人資格으로 參與하는 各種「세미나」및 國際的學會가 있다. 附言할 것은 本大學院은 EROPA의 group member가 되어 密接한 關係가 있다.

敎授들의 學會參與 (表 IX)

- 李漢彬, 韓國行政學會(現會長)
- 韓國行政問題研究所(理事)
- 金雲泰, 韓國行政學會(理事)(前會長)
- 韓國政治學會(理事)
- 韓國行政問題研究所(理事)
- 韓國開發問題研究所(理事)
- 朴東緒, 韓國行政學會(理事)
- 韓國政治學會(理事)
- 韓國行政問題研究所(理事)
- 韓國行動科學研究所(理事)
- 盧隆熙, 韓國行政問題研究所(理事)
- 韓國行政學會(理事)
- 大韓國土計劃學會(理事)
- 俞 焘, 韓國行政問題研究所(現理事長)
- 韓國行政學會(理事)
- 韓國政治學會(理事)
- 徐元宇, 韓國行政問題研究所(理事)
- 金海東, 韓國問題研究所(理事)
- 韓國行政學會
- 趙錫俊, 韓國行政學會(理事)
- 韓國政治學會
- 韓國行政問題研究所
- 安海均, 韓國行政學會
- 韓國政治學會
- 韓國社會學會
- 韓國行政問題研究所
- 崔鍾起, 韓國行政學會
- 韓國國際政治學會(理事)
- 大韓國際法學會
- 李雄根, 韓國行政問題研究所(監事)

教授들의 國際會議 參加現況 (表 IX-2)

李漢彬, 1962	第 12次 國際行政學會 (비엔나)
1965	CAG 發展行政세미나 (버클리)
1966	CAG 發展行政세미나 (호노룰루)
1966	第 4次 EROPA 總會(테레란) 社會開發세미나 議長
1967	太平洋都市會議(호노룰루)議長
1967	第 5次 EROPA 總會(쿠알라룸푸) 一行政改革세미나議長
1968	第 14次 國際行政學會(더블린) 發展行政 Curriculum 에 관한 論文發表
1969	亞細亞大學行政 및 計劃에 관한 國際會議(홍콩), 刷新과 實驗에 관한 세미나議長
朴東緒, 1961	EROPA 總會(東京)
1963	美國行政學會 CACT 세미나(브루밍톤)
1968	韓國行政學會(東京)
1968	行政問題의 Perception 研究 (마닐라)
俞 焄,	第一次 EROPA 總會
趙錫俊, 1962	EROPA 都市行政問題세미나
1964	East-West Center, 「地域社會開發」과 「發展과 Communication」세미나에 Observer 로 參加.
1968	DAG 「革新과 改革」에 관한 세미나(방콕)
1968	EROPA 「革新과 行政」에 관한 세미나(쿠알라 룸푸)
金海東,	第 2次 EROPA 總會
崔鍾起, 1966	比律賓아시아國際問題研究所 세미나
權泰竣,	Comparative Environmental Laws Seminar (Buffals)
盧隆熙, 1965	5. EROPA 理事會
金雲泰, 1968	4. 日本國際基督教大學主催, 韓日行政學會, Inter-University Seminar on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參席(東京)
1968	9. 第 14次 IIAS 總會參席(第一分科委員會 Seminar 에 參與) (Dublin, Ireland)

以上으로서 서울大 行政大學院이 發足以來로 十年間에 걸쳐 國內外學界에 미친 影響을 그 設立以前의 國內學界現況과 設立以後의 波及效果 그리고 教授의 學界活動등의 側面에서 概略하여 살펴 보았다. 이로서 回顧하건대 本大學院은 過去 十年間 國內政局이 波瀾曲折을 거듭하여온 禍中에서도 이에 잘 適應하면서 오늘날의 長足の 發足を 거두고 그동안 學界發展을 위하여 寄與하고 특히 우리나라 行政發展에 核心的이고 中樞的 役割을 해온 것은 國內외의 核心兩面의 支援도 크거니와 本大學院教授 一同의 體系있는 協同의 努力과 그리고 歷代 院長의 創意性있는 「리더쉽」이 힘입은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의 加一層의 憤發精進을 期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